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의 의 록

의회사무처

2013년 10월 1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길용·공한수·박중묵·강성태·이병조·이성숙 의원)(계속) 1

참 조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부산시교육청 교육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는가?
- 충무로 확장공사 조기완공의 필요성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 원자력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 인터뷰 영상
- 원전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부산시 대책 촉구
-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등 실태와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 궤도 없이 달리는 부산교통공사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석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길용·공한수·박중묵·강성태·이병조·이성숙 의원)(계속)

(10시 07분)

○ **의장 김석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해동**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철이와 메텔이 나오는 ‘은하철도999’ 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철로도 없이 기차가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교통국장입니다.

○ **이성숙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서는 교통국에 오신, 국장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한 두 달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 직을 맡으시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교통국의 총책으로서 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통국장으로 오면 저희들 대도시 특성에 있는 이 교통난에 대해서 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또 요즘 와서는 저희들 김해, 가덕도신공항 이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소

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소신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난 해소와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교통행정을 펼치고 싶어요. 또 더불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또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저는 그 모든 것들의 소신은 원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그렇다면 지난 7월에 부산교통공사 신입 기획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의원** 그게 왜 적합하지 않은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산 현재 교통공사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사장을 비롯해서 상임이사 네 분, 감사 하나, 비상임이사 7명, 총 열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지금 상임이사에 사장이 포함이 됩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사장 포함하지 않고 상임이사 네 분이시네요?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다섯 사람. 그쵸?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예.

○ **이성숙 의원**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5조 임원에 관한 조항. 어떻게 임원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설치 조례.

○ **교통국장 정태룡**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 밑에는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 이성숙 의원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정수는 4명 이내다.” 맞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9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원에 대한 조항.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정관은 공사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지금 보면 조례와 정관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타 시·도에도 간간히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없습니다만 그 사항은 또 저희들 시하고 다른 점을 제가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타 시·도에는 조례에 우리들처럼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정관에 위임한다는 사항만 있지...

○ 이성숙 의원 그렇죠. 정관에 위임해서 정해라.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 시처럼 상임이

사를 4명으로 한다는 타 도시는 없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죠? 타 도시에겐 정관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도시에 사장과 상임이사를 분리를 시켰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분리가 되어 있죠.

○ 이성숙 의원 어디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사장, 직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의원 아니요. 우리 정관에는 사장 따로 상임이사 따로 해서 5명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우리 조례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타 시·도가 지금 분리된 곳을 지금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 해석상인데 제가 말씀을 지금...

○ 이성숙 의원 아니, 타 시·도 얘기를 먼저 하시고.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알기로는 직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 이성숙 의원 조례와 정관에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이성숙 의원 조례와 정관에 그 어느 곳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100% 전부 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바로 그 점이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 이성숙 의원 해석상의 차이가 아닌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지금 해석상의 차이라고 했는데 조례와 정관에 분명히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례에, 왜 조례에

그렇게 4명이라고 다시 구분을 지어냈을까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 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전의 사항을 알아보니까 교통공사 설립 시에 방만한 경영을 우려해서 조례에 상임이사 4명을 못을 박은 것 같고요.

○ **이성숙 의원** 누가 박았나요? 그걸.

○ **교통국장 정태룡**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 정할 때 주관은 저희들 설립위원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사 설립 조례는 상임이사 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걸 설립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나오셨습니다.

설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
다. 다른 시·도와 똑같이 그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우리 선배인 기획재경위에 있는 시의원께서 방만한 운영을 우려해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운영적자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돈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해 가지고 이걸 넣도록 했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넣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건 그렇겠네요.

○ **이성숙 의원** 그것을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설립위원회에서 안을 잡아갔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변경을...

○ **이성숙 의원** 의회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알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예. 선배·동료의원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말씀드린 교통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좀 우려해서 의회에서...

○ **이성숙 의원** 줌이 아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조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 **이성숙 의원** 줌이 아니죠. 기회가 되면 끝나고 한번 회의록 보십시오. 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2005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분명히 긴급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에 대해서.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이, 동아대학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거기에서 300명 이상인 경우에 상임이사수를 3명으로 두도록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교통공사는 정관에 분명히 다섯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이것 지금 우리 상임이사 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자료를 요청했길래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 **이성숙 의원** 네. 네.

○ **교통국장 정태룡** 일단 공사의 상임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관에 위임토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4명을 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의 수에 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조례와 정관에서 상임이사 수가 달라지는 그 해석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 **이성숙 의원** 차이가 아니라 그건 말이 엄연히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말이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래서 저도 한번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첫 번째가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을 사장, 이사, 감사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장과 이사가 명확히 구분이 되고. 두 번째, 조례 제5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라는 해석을 사장을 이사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임원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행안부 지방공기업 현행 설립 운영 기준에도 상임이사 정수는 정원기준 2,001명 이상일 경우 4명까지 둘 수 있...

○ **이성숙 의원** 그것 언제 겁니까? 2,001명 그것. 행안부 그것 지침 언제 겁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물론 그 당시의 규정은 아닐...

○ **이성숙 의원** 그거 언제 겁니까? 그것 지침.

○ **교통국장 정태룡** 제정 시기까지는 제가...

○ **이성숙 의원** 아이, 언제 거냐고요. 그것 다 해오셨으니까 얘기하셔야죠.

○ **교통국장 정태룡** 최근 건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최근 겁니다.

○ **이성숙 의원** 최근 언제 겁니까? 몇 년도 겁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몇 년도까지는 제가...

○ **이성숙 의원** 알고 오셔야죠,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

○ **교통국장 정태룡**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조례와 정관 둘 다 지금 상임이사의 임명권자가 사장입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사장이 사장을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상임이사에 포함...

○ **이성숙 의원** 사장이 누구를 임명해요?

○ **교통국장 정태룡**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사장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임이사 안에 사장이 포함된다면 사장이 상임이사라고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의 해석상도...

○ **이성숙 의원**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자, 행안부 지침 1천 아까 600명이라고 했죠?

○ **교통국장 정태룡** 2,001명입니다.

○ **이성숙 의원** 그건 최근 거고. 가장 최근 거. 2010년도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행안부 지침 이걸 만들 때 행안부 지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지침 제가 찾아보니까 동아대학교에서 말한 “300명 이상에 3명을 둔다.” 그게 행안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침입니다. “상임이사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3명만 두게 되어 있다.” 분명히 틀리죠? 최근 걸 여기다가 접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죠?

○ **교통국장 정태룡** 더불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 타 시·도, 그러니까 서울이 예가 되겠죠. 서울은 건설에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네. 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지만 우리는 설립 당시에 건설부분을 교통공사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운영부분을 우리도 상임이사를 3명을 두고 1명은 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1명을 더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말 잘,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경의 시의원께서 그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명을 더 지금 막 집어넣는다는 것 알고 계셔갖고 그것을 우려해서 그걸 넣지 말라고 4명을 규정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 기획재경위에 시의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다른 시·도에도 없는 이 설치 조례에 상임이사의 정수를 규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경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 **이성숙 의원** 결과가 맞는 거죠.

○ **교통국장 정태룡** 상임이사회에...

○ **이성숙 의원** 잠깐만, 시의회에 시의원의 존재가 됩니까? 조례가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이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잘못된 것, 우려되는 것 분명히 뭔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규정과 뜻을 박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변경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에 개정 경과, 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2005년도 동아대학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요.

○ **이성숙 의원** 예,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열거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서 상임이사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이성숙 의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더라도 그것을 우려한 기획재경위가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상임이사의 수를 네 명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기획재경위 위원들이 그 일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 **이성숙 의원** 교통공사가 임원조항을 어쨌든 간에 말씀 여태 하신 것처럼 조례에 기획재경위 위원들이 분명히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할까봐서 그렇게 못을 박아둔 것조차도 무시하고 정관은 개정,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 더 붙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 7월에 올라온 기획본부장 자리입니다. 분명히 저는 봐주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관을 다시 개정하든지 기획본부장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부산시가 어떤 경우에 승인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인가를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공사에 관련되어서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승인과 인가 사항은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아, 부칙이 아니고 정관 제40조에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41조에 시장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게 지금 정관에 정해

저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40조에는 인가사항 그다음에는 승인사항,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예.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제가 앞전에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나름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 승인은, 나는 승인이 이런 거다 생각한다, 인가는 이럴 때 해 주는 거다, 본인의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뭐 전문적인 행정에...

○ **이성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고 본인이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아는 상식은 승인과 인가를 조금 혼용하게 쓰는 면도 있고요.

○ **이성숙 의원**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혼용해서 쓰는 그 뜻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인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 **교통국장 정태룡** 승인이라는 것은 그 사항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 **이성숙 의원** 동의해 주는 것...

○ **교통국장 정태룡** 예, 동의해 주는 것이고 인가라는 것은 보충적인 의미로 법률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사항이 인가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맞습니다. 승인은 동의이고 인가는 그 법률적인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효력을 완성. 분명히 승인과 인가는 틀립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가 이게 맞는

지,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가 맞나 모르겠네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자료에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정관을 개정할 때 항상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시고 어떤 내부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밑에 씁니다. 똑같이 해서 인가와 승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교통공사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보통 승인을 한다고...

○ **이성숙 의원** 보통이 아니라 올 승인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 **이성숙 의원** 어떤 부분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정관과 승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혹시 의원님이 지금 저기서 인가사항을 승인이라고 한다면 용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않느냐, 혹시 그런 지적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 **이성숙 의원** 저의 질문은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관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청할 때도 정관, 내용도 보니까 정관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인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게 원칙이에요.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그런데 모든 걸 다 승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이성숙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정태룡**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 **이성숙 의원** 직의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가와 승인에 대한 행정적인 용어 해석에 대한 생각도…

○ **이성숙 의원** 아니죠. 저는 그 용어가 분명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못을 박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가를 해 줘야 되고 승인해 주는 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제가 지금 승인과 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명확한 점이 그것은 차치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저희들 최근에 사장 임명 처분취소와 관련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한 재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청구 이유가 현행 정관은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재결 결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부산시는 정관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시행하였고 이는 정관개정에 대한 인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이성숙 의원** 그것은 해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통공사사장 임명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러니까 그 이유로 기각이 되었다는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 **이성숙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교통공사사장 임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행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관의 개정을 말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질의한 요지가 인가부분을 승인을 했는데 그게 유효 하느냐…

○ **이성숙 의원** 저는요, 유효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행정의 일이었냐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항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정관에 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승인으로 해놓고서 아, 우리는 무조건 중앙에 행정심판위에 단 하나에 배태수 사장의 문제에 의해 그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정관이 중앙 그 심판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우리 교통공사의 정관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래 용어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 **이성숙 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용어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잖아요? 그 한 예에 불과한 것이지.

○ **교통국장 정태룡** 예가 아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까…

○ **이성숙 의원** 아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모든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배태수 사장건만 그

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사항이...

○ **이성숙 의원** 그게 모든 것이 접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 사항 이해가, 그게 배태수 사장 임명건과 관련 없이 인가했던 사항을 승인으로 표현해도 이게 유효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성숙 의원** 이게 어디서 심판을, 모든 정관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 받았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은 맞는데 인가와 승인이 이렇게 꼭 그걸로 무효화되거나...

○ **이성숙 의원** 제 얘기는 무효화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가와 승인조차도 그 행정의 절차에서 좀 깔끔하게 보시고 이 정관에 맞게 올바르게 제대로 원칙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앞에 말한 정관은 조례를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원 하나 늘린 것을 타당하게 얘기했고 승인의 부분에서도 또 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배태수 사장의 한 건을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저는 상임이사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저희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이성숙 의원**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분명히 잘못할 수 있는 방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시 해 놓은 겁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은 의회에서 개정과정에서 그것을 우려했을 뿐이지...

○ **이성숙 의원** 그래서 넣었습니다. 우려해서 넣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은 법령적인 해

석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 **이성숙 의원**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 명이 더 들어간 것은 맞거든요. 분명히.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사장이 사장을 임명 하나, 그러면 초창기에 그 들어왔던 뭘니까, 기획에 대한 본부장 자리 시에서 다 파견한 것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이전에...

○ **이성숙 의원** 그러면 민간인이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재충원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의원** 똑같죠. 똑같죠.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 사장인 민간인이 본부장을 갖다가 임명해 갖고 파견공무원을 넣어갖고 했습니다. 계속.

○ **교통국장 정태룡** 어떻게 되었던 저하고 의원님하고 좀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의원**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 원칙이 나중에는 엄청 큰 것을 몰아오기 때문에 이것 썩이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승인 인가 이것 별것 아니죠? 정말 승인과 인가가 필요할 때 이게 엄청난 효력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분이 되어질 때는요.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승인과 이것도 인가 비슷한 관련된 것인데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에 부산교통공사 이관을 위해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 역할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설립위원회에 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의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이 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왔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야말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이 분들이 이를 통해서 다 절차를 거쳤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죠. 그 준비과정도 다 해야 되고 마무리도 이 분들이 하시고 넘겨줘야 되죠?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죠? 마무리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거기까지죠, 그죠? 설립하는 데.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예.

○ 이성숙 의원 그렇다면 공사설립을 위해서 설립위원들이 마지막에 정관안을 제출할 때 뭘니까, 설립위원들의 뭘니까,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예, 예. 그게 어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정관에서...

○ 이성숙 의원 다 원칙에 입각한 거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일단은 정관에 위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관의 서명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니요. 근거, 근거 그것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지.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태 얘기한 것 다 지금 제가 근거를 대잖아요.

○ 교통국장 정태룡 서명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야기하면 저희

들 56조와 57조를 저희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56조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 교통국장 정태룡 공사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56조를 언급을 했고요. 57조 사항은 공사에 관한 이 지금 정관을 포함한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법을 준용한다는 그 조항을 제가 말씀은...

○ 이성숙 의원 몇 조가? 상법을 준용한다가 몇 조인데요?

○ 교통국장 정태룡 지방공기업법을 이야기합니다.

○ 이성숙 의원 75조?

○ 교통국장 정태룡 75조, 예.

○ 이성숙 의원 75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예.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상법 75조 준용한다 모든 것은, 그리고 상법에 가면 289조에 정관의 작성에 보면 절대적인 기재사항에 서명날인입니다. 거기까지는 못 보셨죠?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성숙 의원 예,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정관의 기명날인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 자문변호사 변호를 좀 받았습니

다.

○ 이성숙 의원 아이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받았습니

다.

○ 이성숙 의원 예,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정관에 위원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서명날인

이 필요 없다는 사항을 제가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읽어보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첫 번째 지방공기업에 관해서는 이 지방공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56조에 공사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기명날인과 서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리고 75조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법 중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용이라는 해석이, 해석이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그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준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 **이성숙 의원**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변호사님이 다 써주셨는가 보네요. 보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사항을 제가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성숙 의원** 또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래서 정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상법을 꼭 적용할 필요가 없고 지방공기업법 56조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꼭 서명이...

○ **이성숙 의원** 거기에 꼭 서명해라 이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 **교통국장 정태룡**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한 변호사도

있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이성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서명할 필요가 굳이, 그것은 이제 그것이고 거기에 꼭 서명을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말씀이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서명한 사실이...

○ **이성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왜 굳이 교통공사 설치 조례에는 왜 서명 인가, 인가 시에 서명 받아야 된다고 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서명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

○ **이성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립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거든요. 조례 2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사의 설립 준비.

○ **교통국장 정태룡** 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의원** 예, 예. 2조.

○ **교통국장 정태룡** 공사 조례 2조 말씀입니까? 설치 조례.

○ **이성숙 의원** 예, 예. 설치 조례. 부칙이죠. 부칙이죠. 뒤에 가면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 준비 부분에.

○ **교통국장 정태룡** 부칙 2조 공사의 설립 준비.

○ **이성숙 의원** 3번.

○ **교통국장 정태룡** 3항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성숙 의원** 그러면 다 필요 없네요.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러니까 일단은...

○ **이성숙 의원** 국장님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으시고 한 예 들어서 이렇게 막 할 것 같으면 이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일단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서명을 받았던 사실하고...

○ **이성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법이, 그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알고 싶어
요. 이왕 아시려면 여기까지 얘기해 주셔야
죠. 분명히 부산시 설치 조례에는 받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이성숙 의원** 분명히 여기 못을 박았어
요. 자, 정관 서명 아까 받으셨다고 하셨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이성숙 의원** 서명 받은 것 제가 계속
요청 했거든요.

○ **교통국장 정태룡** 아, 그렇습니까?

○ **이성숙 의원** 계속 해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결론은 없다고
왔어요. 왜 없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것 끝나고 바로 제
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아니죠. 없다고 했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갖고 계세요? 지금. 본인은
있으세요.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니, 본인은 있는데 왜
나는 안 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 **이성숙 의원** 아니요. 말고 서명 받았
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예.

○ **이성숙 의원** 서명 받은 것 저한테 달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있는데 나는
안 주나요? 왜 저한테, 제가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목이 아프게.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을 제가 지금 추
측해 보면 늦게 서류를 찾았거나 그런 것 아
니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아니요. 늦게 찾았어도 어
저께 저녁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러면 의원님이...

○ **이성숙 의원** 지금 갖고 계세요?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말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
다. 갖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있다고 하셨
으니깐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말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서명한 것, 사인 서명
된 것. 심의결의서 아닙니다. 정관입니다. 갖
고 오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어저께
저녁까지 없다고 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을 의원님께 속
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 **이성숙 의원** 없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
까? 그러면 내가 담당자 이름 다 댈까요? 저
한테 그렇게 말한. 일단 그것을 봐야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니깐요. 저
한테는 제가 물을 때마다 없다고 했거든요.
끝까지 없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모르
겠네요. 국장님은 갖고 계시는 정관의 사인
을 왜 저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요. 줘야죠. 당연히. 내가 이 질문을 만들려
면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흐름
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질문이
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한 말씀 드려도 되겠
습니까?

○ **이성숙 의원** 예.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의원님께 의원
님이 평소 교통공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면서 많은 날카로운 지적과 하
시는 걸 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의
원님께 좀 개략적인 질문요지라도 좀 요청했
습니다만 의원님이 안 주셔서 제가 좀 질문,
답변이 오늘 좀 불충하거나 좀 모자라지 않
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 **이성숙 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거
기에 이것은 시간 올라가는데 이것 지금 정
관해야 되는데요. 이것 다른 것 올라가는데

요.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이 뭘니까, 작성을 제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부분을 빼다도 얘기를 했고 뭐뭐 한다도 빼고 또 뭘 하겠다라고도 담당자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조례, 설치 조례 정관 다 얘기한다, 이사의 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 얘기했습니다. 뭐가 안 되었다는 건데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 **이성숙 의원** 뭘 질문서 이것 다 달라는 겁니까? 통째로.

○ **교통국장 정태룡**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준비를 더 충실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 **이성숙 의원** 많이 해오셨어요, 충분히. 충분히 많이 해 오셔서 대답 잘 하고 계시는 데요. 대답이 너무 타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셔서 문제지. 부산시가 갖고 있는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타인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게 저의 원칙이 자...

○ **이성숙 의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저의 원칙은 부산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원칙이고 정관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일을 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는 신념이 중요하겠지만 법률적인 관계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사실관계를 하기 전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다뤄야 됩니다.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뭐 하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심의합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됩니까? 의원들이 만든 심의한 조례가 이런 식으로 외도되면.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직원 이성숙 의원에게 자료전달)

국장님 제가 심의결의서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정관에 사인 얘기했습니다. 심의결의서는 저도 있어요. 심의결의서와 정관은 틀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불임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인가 신청한다. 불임, 결의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산교통공사 정관안에 해서 그렇게 불임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님께서 인가하셨다라고 도장 박아서 나온 데 보면 분명히 심의결의서 이것 한 장 그다음에 정관 따로 들어갑니다. 그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성숙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원래 원칙을 얘기해요.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관은. 이게 무슨 정관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심의결의서가 이게 정관의 사인이냐고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정관에 대한 의결서입니다. 그것이.

○ **이성숙 의원** 심의결의서지 정관안에 사인을 기명날인하라고 법률에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게 정관안에 사인한 겁니까? 이게 국장님은 정관안에, 정관을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딱딱딱 사인한 겁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정관을 심의하고 난 의결사항이...

○ **이성숙 의원** 우기지 마세요. 이게 정관안에 사인입니까? 이게.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정관안에 사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안을 다 우리가 이 정관을 승인한다 해 갖고 그 설치위원을 딱딱딱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인가를 받으라고 여기 조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정관안입니까? 이게 그것을 대신합니까? 이것은 이

것대로 따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장 그것 한 장, 두 부를 받아서 인가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그 해석 차이를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러도 되겠습니까?

○ **이성숙 의원** 또 해석 차이입니까? 이게 해석차이에요? 나는 이걸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이게 정관안에 사인이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정관안에다가 같이 이것을 하고서, 그러면 여기에 뭐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붙임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기로 결의한다.’ 이게 무슨 정관에 대한 사인이예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 **이성숙 의원** 이것은 이걸 결의하는 사인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의원님 정관에 대한 효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의원** 아니요. 국장님이 이렇게, 이게 우리 지금 부산시 교통국의 현실입니다. 교통공사의 현실이고. 제가 시장님 질문을 해야 되요. 3분 55초밖에 안 남았어요. 국장님이 지금 필요 이상에, 그러면 시장님에게 이것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 **시장 허남식** 예.

○ **이성숙 의원** 제가 국장님께서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다음도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 없으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인가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가를 하셨다라고 여기 도장을 땅

땅 다 박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장님이 해서 승인 통보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시장 해 갖고. 시장님은 뭘 갖고서 인가해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 **시장 허남식** 제가 아마 그것은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방금...

○ **이성숙 의원** 예, 예. 감안하고 제가 들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 질의시간 끝나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 **이성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과 지금 이 견해를 갖고 하는 그 부분 한 가지만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시장님 가셨어도 이게 이 뜻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시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예.

○ **이성숙 의원**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단계 우리가 2006년 1월 1일날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전에 마지막 이 정관안에, 이 정관안에 시장님의 인가가 나와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 정관안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설립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법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시 설치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 75조에 상법에 준용한다, 289조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 기명날인이고 그것이 또 설령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부산 설치 조례에 의하면, 우리 조례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설치 미리 만들어야 정관을 해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그 위원들의 정관을 다 만들어놓고 기명날인한 후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심의결의서 한 부 아까 갖고 있었던 것 있죠? 이것 한 부

그다음에 정관에 사인된 것 한 부, 그 두 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인가 이렇게 해서 승인 통보했다라고 뭐니까, 도장 땡땡 박은 것 다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록까지 다 있고 온 게 다 있어요. 그것만 없어요. 정관에 사인한 것.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것만 없을까요?

○ 시장 허남식 그러니까요. 그런 내가 내용들을 서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넘어갈 당시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정황들이 벌어졌고 일 처리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길 부시장님이 가서 그것을 등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상황이 굉장히 좀 급했구나.’ 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립을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설립 추계가 공사가 공단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가 공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정관만 반듯하게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없었다, 만약에 시장님 다시 알아보았는데 그 부분이 제 추측대로 없었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이것도 시장님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시장 허남식 제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서류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그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시장 허남식 예.

○ 이성숙 의원 그것이 제가 주장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관에 사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님 인가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갖고 나왔을 때 이것은 살아있는 정관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게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 이성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시간을 지연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고 그게 뭐냐고 별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강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리원전의 문제, 원전비리의 문제 처음의 시발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

다. 이거 하나쯤이야,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을 다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큰 원전의 비리가 되었고 부품의 비리가 되고 결국 그것의 결과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불안까지도, 위협까지도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교통공사가 이런 자그마한 원칙, 작은 것도 아니죠. 정관에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사수가 맞지 않다는 거 이걸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까? 승인과 인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이걸 왜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까?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꼭 교통공사가 원전과 같은 그런 시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교통공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셔서 반듯하게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임기가 지금 올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시는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작지만 시장님께서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궤도 없이 달리는 부산교통공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의장 이해동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리고 답변을 해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06분)

○ 부의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50인

강성태	공한수	권오성	김기범
김길용	김름이	김상식	김석조
김선길	김수근	김영수	김영욱
김정선	김척수	김홍남	박석동
박인대	박재분	박중묵	배종웅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송순임
신숙희	신태철	오보근	이경혜
이대석	이동운	이병조	이산하
이상갑	이상호	이성숙	이일권
이정운	이종택	이주환	이진수
이철상	이해동	제종모	전봉민
최부야	최형욱	허태준	황상주
황보승희			

○ 결석의원

권철우 노재갑 배문철 이종환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형양

의사담당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통국장 정태룡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건설방재관 여준모

건축정책관 조승호

대변인 성덕주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감사관 송근일

기획재정관 이병석

인재개발원장 신용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설본부장 김종철

낙동강사업본부장 이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임혜경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천정국

행정국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서정혜

김성미 김경빈 안병선 송기학